



접종의 종류

접종 백신을 분류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기본접종과 선별접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BCG, B형 간염, DTaP, 소아마비, MMR, 뇌수막염, 일본뇌염과 같이 지역내의 역학적인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기본접종과 수두, A형 간염, 독감, 폐구균 등과 같은 선별접종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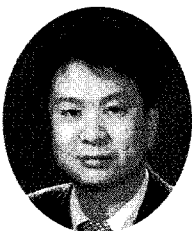
즉, 예방접종은 일반적으로 유병률이 높거나 병에 걸리면 치명적인 질환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접종으로 정하여 맞지만 이보다 유병률이나 치명률이 낮은 질환에 대한 것은 선별접종으로 그 질환에 잘 걸리는 고위험군과 원하는 사람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수막염이나 A형 간염, 수두, 독감 등의 선별접종이라도 병을 예방하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신체적 문제나 백신자체의

대한소아과학회 소아 예방접종표(2002년 개정)

연령	종류
0~1주	B형 간염 ¹⁾
0~4주	BCG
1개월	B형 간염 ²⁾
2개월	B형 간염, DTaP,
	폴리오 ³⁾ , Hib ⁴⁾
4개월	DTaP, 폴리오, Hib
6개월 ⁵⁾	B형 간염, DTaP,
	폴리오, Hib
12~15개월	MMR, 수두 ⁶⁾ , Hib
12~36개월	일본뇌염 ⁷⁾
18개월	DTaP
4~6세	Dtap, 폴리오
	MMR
6세	일본뇌염
10~12세	성인용 Td ⁸⁾
12세	일본뇌염

1) 모체가 양성인 경우, 초회 접종으로 12시간 이내에 부위를 달리 하여 B형 간염 백신을 투여하며, 반드시 0, 1, 6개월 3회 접종한다.

2) 음성인 경우, 초회 접종을 2개월부터 접종하여도 좋다.



손 용 규 | 소아과의원 원장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병에 걸리지 않게 백신이란 것을 몸에 일부러 넣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접종 후 부작용으로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려는 엄마들의 걱정거리를 만 들고 있는데 걱정을 덜도록 백신에 대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위해

예방접종 바로 알기



제품에 따라 0, 1, 6 또는 0, 1, 2 개월 3회 접종한다.

3) 경구용과 주사용 폴리오 백신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접종한다. 4회 모두 경구용 또는 주사용을 접종하거나, 처음 2회(2, 4 개월 접종)는 주사용, 나머지 2회(6개월, 4~6세 접종)는 경구용 접종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구용 폴리오 백신을 투여할 경우에는 접종 후 백신관련 마비성 폴리오가 올 수 있음을 고려한다.

4) 기본접종에 포함되지 않으나 적극 권장되어야 할 백신 제품에 따라 2~3회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이 필요

5) 홍역 유행시 6개월부터 홍역 단독 백신을 접종한다.

6) 기본접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적극 권장되어야 할 백신이다. 수두를 앓은적이 없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에는 1회만 접종하고 13세 이상에서는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7) 사백신과 생백신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접종한다. 사백신의 경우 기초 접종은 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다음 해에 1회 접종하며 추가 접종은 6세, 12세에 한다. 생백신의 경우 기초접종은 처음 방문하여 1회만 접종하고 다음 해에 1회 접종하며 추가 접종은 6세에 한다.

8) 10~12 세부터 매 10년마다 접종한다.

*이 밖에 정상 소아에게 접종을 고려할 수 있는 백신에는 폐구균 백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A형 간염 백신 등이 있으며, 접종 여부를 소아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접종한다.

기준이 되지 않아 이를 맞을 수 없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맞는 것이 미래의 시간과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좋습니다.

동시접종과 접종시기

접종시기에 대해서는 물론 제 시기에 스케줄대로 접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나 다른 여건들에 의해 시기를 놓치게 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종순서가 바뀌거나 늦더라도 접종을 하는 것이 거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므로 늦은 것을 알았을 때 빨리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제 시기에 접종을 하는 것보다는 항체 생성률 즉 면역력이 다소 저하될 수는 있

지만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접종시기가 늦은 경우뿐 아니라 접종을 늦지 않게 하려면 “동시접종”이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예방접종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즉 한꺼번에 맞는 경우에는 어떤 백신이든 같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백신의 경우는 접종간격이 필요없으며 생백신 - MMR, 수두, 일본뇌염 생백신 - 은 동시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1달 이상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이면서도 병원에 오기 힘든 미국에서는 한꺼번에 4가지의 백신을 접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백신에 대한 불신과 메스컴의 악영향으로 동시접종을 꺼려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동시접종을 잘 하지 않으려 하지만, 병원에 자주 와야 하는 불편함이나 접종스케줄이 늦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가능한한 한번에 접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방접종을 가능하면 오전에 하게 하는 이유는 접종 후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주 극히 드문 쇼크 증상이 대개 접종 후 20~30분에 나타나며 그 외 급성소견이 12시간 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전에 접종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의 종류에 따라 이상반응 소견이 1~2주 뒤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심한 이상반응이 거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이런 주의점들이 백신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차접종과 백신제품

일반적으로는 접종백신은 같은 것을 접종하는 것이 좋지만 다른 회사의 것으로 접종하여도 효과가 같다는 연구결과를 보인 백신들이 많습니 다. A형 간염, B형 간염, 뇌수막염 백신 등은 “교차접종”

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백신 종류의 것은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접종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신들로는 A형 간염, B형 간염, 뇌수막염(Hib), 소아마비 백신 등이 있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과 접종금기

모든 약품들이 그렇듯이 예방접종 백신도 일부에서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약보다 백신은 안전하며 심한 이상반응의 경우 10만~100만 명 중 한 명 정도의 극히 일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신생아가 약 50만명 정도가 태어나므로 한번의 접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국민 중 1~2년에 한 명 정도에서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이상반응이 걱정이 되어서 접종을 못한다면 길가다 차사고로 다칠까봐 밖에 못 나가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심한 이상반응이 일어난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위해 1995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에 법사위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반드시 국립보건원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내에 보상하도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반응에 대한 대비로 접종전에 접종금기사항을 두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주의사항이며 엄격한 의미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항구적인 금기사항은 백신의 성분에 대한 알

러지가 있는 경우와 백일해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증이 발생한 경우뿐입니다.

그 외에 항구적인 금기 사항은 아니지만 피접종자의 상태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려지 반응이 있는 경우나 생백신은 임신, 면역결핍, 혈액제제를 투여한 경우에接种의 금기사항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접종기록의 보관

2000년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2005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기본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병·의원에서 접종한 기록들이 한 곳에 모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학시 접종한 병·의원을 찾아 다니면서 접종기록을 받아야 하고, 병·의원이 이전, 폐원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예방접종수첩을 잘 보관하셔서 이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외국에 아이들을 유학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때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접종기록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해 서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안전하고 정확한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스케줄에 맞게 접종 시키고, 접종 전후의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